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271-308
<https://doi.org/10.29212/mh.2018..108.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朝鮮策略』 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

: 러시아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1880-1881)을 중심으로¹⁾

최덕규*

1. 서 론
2. 러청이리분쟁(露淸伊犁紛爭)과 『朝鮮策略』
3.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의 체결
4. 고종정부의 북방외교와 한러수교
5. 결 론

1. 서 론

러일전쟁(1904-1905) 시기 러시아 발트함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함대의 극동 원정은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1880년 러시아 해군상을 사직한 레솅스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이 논문은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 결과물임.

(С.С.Лесовсий, 1817-1884) 제독이 극동에 집결한 전함 23척을 직접 지휘하면서 위용을 드러낸 “레슈스키 함대”는 이후 발트함대의 극동 원정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러청(露淸)전쟁 대비가 본연의 목적이었지만, 고종정부에게는 대러 접근정책으로 구체화된 북방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러청간의 이리(伊犁)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고종의 북방외교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1880-1881)은 신장(新疆) 서부의 이리(伊犁)지역 문제를 둘러싼 러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리분쟁은 외견상 이리지역에서의 러청 무역과 관련이 있었으나, 영국을 대신한 청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사실상 영러대결의 신장판(新疆版)으로 특징할 수 있었다. 신장지역은 카자흐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였기 때문에, 이리지역의 交易路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의 통로였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도(印度)방위를 위해 러시아의 이리지역 점령을 적극 저지해야 할 요충지였다. 따라서 영국, 러시아, 청국을 중심으로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이 그 외연을 이루는 이리위기(Ili Crisis)는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문도 사건(1885-87)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이리(伊犁)위기 당시 청국의 황준헌(黃遵憲)은 한국외교의 지침으로 방아론(防俄論)에 근거한 『朝鮮策略』을 집필하였다. 김홍집이 이 책을 국내에 소개(1880)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러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을 때, 고종의 명을 받은 장박(張博)이 파견된 곳은 연해주였다. 이후 연해주를 정탐하여 국왕에게 올린 정세보고서가 이어졌는데 1882년 12월 백춘배(白春培)의 ‘아라사채탐사백춘배서계(俄羅斯探探使白春倍書啓)’가 대표적이다.²⁾ 23척에 달하는 대규모의 러시아함대가 1880년 9월 블라디보

2) 백춘배의 서계는 1882년 음력 12월(壬午年 臘月)에 작성되어 고종에게 바친 것으로

스톡에 원정하여 이곳을 근거지로 청국에 대한 압박 작전을 준비했고 1881년 6월이 되어서야 본국으로 귀환하였음에도, 러시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고종의 북방정책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다. “1880년 장박이 변경 문제로 연해주에 갔었다고 하나 그 변경문제란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 수준이다.³⁾

이 주제에 대한 국내연구가 미진했던 원인은 아래의 두 가지와 관련 있다. 첫째, 자료의 한계이다. 레습스키 제독이 지휘한 러시아함대의 극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할 이유 열 가지(俄의朝鮮侵略의十端)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러시아의 동진정책은 터키, 카자흐스탄을 지나 新疆에 이르렀기에 그 세력이 차례로 조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사통팔달하는 한국의 항구를 탐내고 있다 3) 블라디보스톡 항은 군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동항을 얻고자 한다. 4) 일본의 한국침략을 부추겨 성공할 경우, 함경도를 할양해 가지려는 음험한 꾀를 추구한다. 5) 블라디보스톡은 한러국경에서 불과 300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조선과 海港을 공유하고자 한다. 6) 한국은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토지가 기름지고 비옥하다. 7) 한국 백성들이 때를 지어 노령에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허실을 잘 알고 있다 8) 러시아인의 성정이 횡포하기에 조선에만 유독 너그러운 리 없다. 9) 러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입술과 이빨의 관계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선을 확보하여 중국의 목구멍을 막고 東쪽의 일본의 어깨를 누르려 한다. 10) 러시아로 도망하여 조선이 좋다고 과장하여 러시아 사람에게 취할 것을 권했던 임락지(林樂之)와 같은 자를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의 용인술이 그것이다. 國史編纂委員會, 『修信使記錄』, 『俄羅斯探探使白春培書啓』, 1958, pp.191-194.

- 3) 李光麟, 「舊韓末 露領移住民의 韓國政界進出에 대하여 -金鶴羽의 活動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08, 1985. pp. 51-86. 또한 러시아의 연구에서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고종정부의 대러 수교정책과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러청관계사와 한러관계사 연구의 분절성과 관련이 깊다.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에 대한 주제는 대부분 러청관계사에 한정되어 연구되어 왔던 반면, 한러관계사 연구에서는 레습스키 함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 학자들의 업적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 사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나 정책의 연동성을 밝히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러시아의 한러관계사 연구에서는 고종정부가 『朝鮮策略』 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예의주시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대러 접근정책으로 이어지는 연쇄과정에 대한 검토가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A.Л.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 1956. pp.289-290.; *История Корея*, Том 1,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 1974. pp.333-335.; Б.Д.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2004. pp.127-136. Бэлла Пак,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К.И.Вебер и Корея*, М., 2013, pp.30-41.

동원정 관련 자료는 대부분 러시아해군성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이하 РГАВМФ로 약함)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자료의 접근과 수집에 제약이 따르며, 1880년대 초반 고문서에 대한 해독상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러관계사 연구범위의 한정성(限定性)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관계로만 연구 범위를 한정해온 한러관계사 연구의 관성과 관련이 깊다. 한러관계사, 한미관계사 등으로 오직 양국간 관계로 연구 분야를 칸막이 할 경우, 주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맥락적 사고가 곤란해질 수 있다. 한러관계사는 본질적으로 국제관계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동시기의 세계사와 상호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터전쟁, 러청 이리(伊犁)분쟁,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시야에 두어야만 고종의 공러의식(恐露意識) 극복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누가 새롭게 생각한 인물인가?”이다. 이는 청국정부의 對露觀이 집약된 황준헌의 『朝鮮策略』(1880)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한 방아론(防俄論)을 설파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대러 접근을 도모한 인물이 누구이며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러의식(Russophobia)을 극복하고 러시아를 근대 한국의 국제관계사에 포섭했던 인물로 고종에 주목한다. 그는 와해되어 가는 중화체제를 대체할 “포스트 중화체제(Post Sinocentric system)”를 전망함으로써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러시아해군성문서관(РГАВМФ)에 소장되어있는 레쉴스키 제독의 극동원정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⁴⁾

4) 또한 러시아역사문서관(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이하 РГИА로 약함)에 소장된 Ф.536. ‘국가회의 국가경제국(ДЕПАРТ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자료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承政院日記』와 『高宗實錄』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

2. 러청이리분쟁(露清伊犁紛爭)과 『朝鮮策略』

이리(伊犁)⁵⁾분쟁은 1871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청국 신장(新疆)의 이리강(伊犁江) 유역에 대한 청국의 반환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 군대는 러청 간의 국경무역이 확대되고 있던 이리지역으로 회교도의 반란이 확대되자,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에 1878년 좌종당(左宗棠)이 이끄는 청국군이 회교도의 반란을 진압한 후, 이리지역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러시아 군대의 철병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양국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리분쟁의 러시아측 원인은 러시아 중앙정부와 현지 주둔군 사령관들과의 견해차였다. 이리지역 반환을 위한 협상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1879년 3월 4일 각료회의에서 영토 반환의 대가로 러시아 상인들의 현지 교역 허가, 러시아 영사관 설치 및 이리강(伊犁江) 상류의 테케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 그럼에도 러시아 육군성에서는 투르케스탄 총독 카우프만(К.П.Фон Кауфман) 장군과 세미레첸스크(Семиреченск) 지역 군무지사 콜파콥스키(Г. А.Колпаковский)가 중심이 되어 추가로伊犁江 서부지역을 러시아에 병합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지역이 키르기스 유목민들의 이동경로

kr)과 국사편찬위(<http://sillok.history.go.kr>)의 디지털 자료를 활용했다.

5)伊犁(Кульджа)의 현재 행정지역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이리 카자흐 자치주이다. 신장은 1759년 청의 건륭제가 정복하여 신장의 북동부 이리강 유역에 위치한伊犁가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신장의 면적은 55만 평방마일로 프랑스의 약 2배 반에 해당하며 천산산맥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뉜다. 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동쪽으로는 감숙성(甘肅省), 남으로는 티베트와 카슈미르와 접하고 있고 서쪽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와 접해있다. 토질이 비옥하여 물산이 풍부하며 18세기말부터 러시아와 교역이 증대되었다.伊犁는 신장 남부의 카슈가리아(Kashugaria)를 잇는 통로이자 전략요충지에 위치함으로써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을 “신장의 요새(fortress of Sinkiang)”라 불렀다. Immanuel Hsu.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p. 17-18.

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이곳을 반환할 경우, 적어도 6천만 루블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러시아 외무성은 이리지역 반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는 러터전쟁(1877-78)을 마무리하는 베를린 회의(Congress of Berlin)에서 三帝同盟(Three Emperors League)을 구성하고 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교적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에 반대했고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을 드는 사이, 영국 역시 지중해의 패권유지를 위해 대러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⁶⁾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교에서 패배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 외무성은 유럽 외교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이 러청 간의 국경교섭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 외무성은 육군성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아시아 국장이자 부외상을 겸임했던 기르스(Н.К.Гирс)는 베를린 회의에서 외교적 실패를 겪은 외상 고르차코프(А.М.Горчаков)를 대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리강 서부유역을 러시아에게 넘길 것을 제안한 콜파콥스키 장군의 요구는 유지하되, 러시아군대 주둔

6) Stanford J. Shaw, Ezel Kural Shaw, *History of the Ottoman Empire and Modern Turkey: Volume 2, Reform Revolution, and Republic: The Rise of Modern Turkey 1808-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189-191. 러시아는 발칸반도의 슬라브민족 해방을 기치로 러터전쟁(1877-78)에서 승리하여 터키와 산스테파노 조약(1878.3.3.)을 체결했다. “에게해(Aegean Sea) 연안을 영유하게 될 새롭고 거대한 불가리아(Big Bulgaria)를 건국한다”는 조약 제1조가 대영제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영국은 조약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대러開戰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중재 하에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영국은 에게해에 러시아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수에즈(Suez) 운하에서 영국을 잇는 제국항로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 지중해의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리아의 분할을 요구했다. 결국 러터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한 러시아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전리품을 터키에게 돌려준 대가로 지중해 제해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프러스를 점유하는 협정을 체결(Cyprus Convention, 1878.6.4.)하였다.

비용은 5백만 루블로 삭감했다. 이에 1879년 10월 2일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리바디아에서 청국 전권대표 송후(崇厚)와 러시아 외상 직무대리 기르스(Н.Гирс) 간에 이리지역 반환을 위한 러청조약(리바디아 조약: Treaty of Livadia)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 이리지역 서부의 토지를 러시아에 할양하고 2) 러시아인에게 중국서부 여행의 자유와 무역특권을 허락하며 3) 러시아가 이리지역을 점령하여 치안을 유지하면서 지출한 러시아 군대의 주둔비용 500만 루블을 청국이 보상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리바디아 조약에서 청국이 러시아에게 이리(伊犁)지역 점령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공법 질서하의 대등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사실상 전승국이 패전국에게 부과하는 조건으로서 청정부에서는 이를 굴욕적인 조약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조약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청정부 내부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리한 조약 체결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청정부는 이 조약을 체결한 전권대표 송후(崇厚)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한편, 전쟁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전파가 부상하게 되었다.⁷⁾ 이것이 이리위기(Ili Crisis)의 청국 측 원인이었다.

러시아와의 조약폐지를 주장한 주전파의 수장은 湖南省 출신의 좌종당(1812-1885)이었다. 그는 전권대표 송후(崇厚)가 체결한 리바디아 조약과 관련, 조약을 폐지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廢約備戰)고 주장하고 나섰고, 장지동(張之洞) 역시 폐약(廢約)과 송후의 처형까지 상주하기에 이르렀다.⁸⁾ 이 같은 청정부의 입장은 국경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불평등한 러청 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었다.

7) Immanuel Hsu.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pp.60-63.

8) 鄢洪峰, 论曾纪泽与中俄伊犁交涉,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社科版), 第26卷 第1期, 2010年 2月. pp.66.

그러나 리바디아 조약에 대한 청정부의 강경입장은 이홍장의 “先允后翻論”이 제기되면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홍장의 입장은 “崇厚條約”을 일단 접수한 다음 새로운 모색을 하자는 것이었다.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쟁점은 청국의 주적(主敵)이 러시아인지 아니면 일본인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는 이리지역 회복을 위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자주국으로 인정한 한일 간의 강화도조약이 체결(1876)되었고, 청의 속국이었던 류큐(琉球)가 일본에 병합되는 사건이 발생(1879)했기 때문이었다. 청국의 적은 북방에 있는가 아니면 바다에 있는가? 이 고민은 러시아가 청국의 주적이라면 육군력을 증강하여 변방을 강화해야하지만, 일본이 주적이라면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陸防論”과 “海防論”의 대립으로 진화했다. 左宗棠이 “육방론”의 옹호자라면, 李鴻章은 “해방론”의 지지자였다.

청정부는 양자 간 논쟁의 타협책으로 굴욕적인 리바디아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리바디아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승후의 처형을 공표한 것은 대러 조약 개정을 위한 “備戰促和”의 방책이었다. 동시에 주영공사 증기택(曾紀澤: 1839-1890)을 러시아 주재 공사로 임명하여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⁹⁾

한편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해군기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해군성은 블라디보스톡을, 육군성은 聖 올가 만(灣)(Залив Святой Ольги)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발칸반도에 대한 오토만 제국의 지배력이 쇠퇴함으로써, 극동지역에 대한 새로운 질서수립을 둘러싼 영리 간의 충돌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러시아는 청국보다는 영국과의 충돌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은 항구의 강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올가 만(灣)은 러터전쟁 이후 국방비 감축원칙에 따른 대안이기도 했다. 올가 만은 육군 참모총장 오브루체프(Н.Н.Обручев) 주재 하의 특별위원회에서 해군성

9) 鄢洪峰, 论曾紀澤與中俄伊犁交涉, pp.67.

에 이를 권고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다.¹⁰⁾ 육군성의 입장에서 방위비 삭감의 부담은 해군성의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극동의 해군기지로 올라 만을 결정한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었다. 동시베리아 군관구 사령관 프레데릭스 공(барон П.А.Фредерикс)은 해안포대를 갖춘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대대적인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군성에 발송된 동아시아 항구사령관 에르드만(Г.Ф.Эрдман) 제독의 정책건의서는 블라디보스톡의 개발의 당위성을 담고 있었다. 그의 건의서는 해군성 지휘부가 일본 함대의 성장과 특히 강화도조약 이후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한국의 항구들로 입항을 보장받은 일본정부의 열정적인 활동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제독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전으로 위신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다음의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태평양에 일본에 뒤지지 않는 해군력을 집중시켜야만 하고 둘째, 블라디보스톡은 증강된 러시아 함대의 최적의 정박지인바, 그곳은 항만이 넓고 전략적인 입지 역시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¹¹⁾ 1880년 1월 15일 에르드만 제독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소환된 것은 극동지역의 항구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¹²⁾

항구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해역에 러시아 해군력 강화 문제가 긴급히 제기된 계기는 청정부가 승후에 대해 사형을 선고 했다는 주청러시아공사 코얀데르(А.И.Кояндер)의 보고(1880.3.7.)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 청정부에 반외세파가 득세하여 만주, 몽골, 서부 국경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2) 북경주재 외국 공사들은 자국의 태평양 함대 지휘관들을 상하이로 집결하도록 조치했고 3) 러시아 역시 태평양

10) РГАВМФ. Ф.410. Оп.2, Д.3623. Л.29, 34об-35.

11) РГАВМФ. Ф.410. Оп.2, Д.3623. Л.72-75.

12) Кондратенко Р.В.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pp.35-36.

함단 사령관 슈타켈베르크(А.И.Штакельберг) 제독에게 함단의 증강을 요청하고 소볼(Соболь)호와 모르쥬(Морж) 호의 함장들에게 상하이로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태평양 함단은 기지에 상주하는 소규모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제독이 지휘하는 함단들이 상호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¹³⁾ 그 결과 외상 기르스는 해군상 레솅스키 제독에게 슈타켈베르크 함단과 교대할 아슬란베고프(А.Б.Асланберов) 함단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3.16.) 하기에 이르렀다.

기르스 외상이 아슬란베고프 함단의 조속한 발진을 예의주시한 것은 러청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외상이 “우호적인 러청관계 유지를 위하여 승후의 처형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청공사를 통해 청정부에 전달하도록 지시(1870. 3.1.)했음에도 회신의 내용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코안테르의 회신에서는 “청국인들은 우호관계를 중시하지 않으며 이리지역 문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¹⁴⁾

러청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해군성은 신형 장갑 전함의 건조와 발트해에서 태평양으로의 전함파견을 둘러싼 예산 지원문제로 재무성과 접전을 치르고 있었다.¹⁵⁾ 이미 1879년 11월부터 해군상 레솅스키는 최근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되고 있음에 주목해 줄 것을 국가회의(Гос.Совет)에 요청한 바 있었다. 레솅스키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4척의 장갑순양함과 도합 137문의 함포를 적재한 16척의 순양함을 보유하고, 중국은 도합 90문의 함포를 적재한 22척의 순양함을 보유하고 그 가운데 8척은 신형 전함이었다. 그럼에도 재무성은 러터전쟁에 지출된 전비부담으로 장갑전함 건조에

13)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2, 60.

14)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58-61

15) РГИА. Ф.1152. Оп.9. Д.600Е. Л.746об.-747.: Соображения М.Ф. на Объявления Мор. Министерства.

필요한 긴급예산 지원을 거부했다.¹⁶⁾ 결국 태평양함대 증강을 위한 재무성의 예산은 러청 간의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빗장이 풀렸다. “긴급 군사상황에 따른 비용”이란 명목으로 태평양함대 증강을 위한 비용 1,807,707루블을 해군성 예산에 배정하기로 한 결정은 1880년 12월 30일자 국가회의에서 이루어졌다.¹⁷⁾

대청(對淸) 압박을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외상의 판단은 극동으로의 함대파견을 서두르도록 했다. 1880년 3월 17일 레습스키 제독은 아덴(Aden)에 정박 중인 아슬란베고프 제독의 함대가 극동으로 긴급 출동하도록 명령했다.¹⁸⁾ 1880년 3월 4일 외상 기르스가 레습스키 제독에게 주청공사 코안데르와 駐日公使 스트루베의 전문사본을 동봉하여 아슬란베고프(А.Б.Асланбегов) 함대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한 것도 對淸 압박을 위해 함대증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¹⁹⁾

마침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II세는 3월 29일 그리스 해역에 정박중이던 프레기트 함 ‘포자르스키 공(Князь Пожарский)’을 원정함대의 기함으로 선정하여 태평양으로 급파한다는 계획을 재가

16) РГИА. Ф.1152. Оп.9. Д.600Е. Л.823-827.

17) Реш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т 18 декабря 1880 г. «О финансовой смете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 1881 год», пункт 32 — РГИА. Ф. 1152. Оп.9. Д.615е. Л.891об.

18) РГАВМФ. Ф. 410. Оп. 2. Д. 4071. Л.9-10

19)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1. 그 다음 조치는 신형 함대의 발전이었다. 3월 6일 러시아 해군성은 크론슈타트 항구 사령관 코자케비치(П.В.Козакевич) 제독에게 프리기트호 ‘게네랄 아드미랄(Генерал-Адмирал)’호와 클리퍼함 ‘플라스툰(Пластун)’과 ‘자비야카(Забияка)’, 순양함 ‘아프리카(Африка)’와 ‘에브로파(Европа)’호의 9개월간 해외 항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페슈로프(А.А.Пешуров) 副海相은 클리퍼함 ‘스트렐로크(Стрелок)’와 ‘크레이세르(Крейсер)’호를 태평양함대에 추가 배치하기로 외상 기르스와 합의하였다. 또한 1880년 3월 22일 러시아로 귀환하던 도중 알렉산드리아에 기항했던 “크레이세르”호는 극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재출발 하였다.(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80.)

했다.²⁰⁾ 이에 크론슈타트와 니콜라예프로 전문을 보내 즉각 함정들을 무장하는 작업이 개시되었다. 극동에서 러시아 해군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명확했다. 강력한 해상시위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작전이 핵심이었다. 중국과의 국경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육군을 투입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도 러시아 함대의 극동 원정의 주요 원인가운데 하나였다.

러시아 함대의 대중국 무력시위를 위한 준비과정은 레솅스키 제독이 육군상 밀류틴(Д.А.Миллютин)에게 보낸 기밀서신(4.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첫째, 1880년 5월말-6월초까지 아슬란베고프 제독의 함대를 일본 나가사키에 집결시키고 둘째, 그리스의 피라에우스(Port of Piraeus) 항에 정박 중인 기함 ‘포자르스키 공’호를 수에즈 운하를 거쳐 극동의 아슬란베고프 함대에 합류시키며 셋째, 크론슈타트 항에 정박 중인 발트함대의 함정들이 태평양으로 발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었다.²¹⁾ 더욱이 러시아 해군의 가용전력 대부분을 동원하여 청국을 압박한다는 레솅스키의 계획은 단순한 해군력 시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해상 압박은 육군과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경(北京)공약을 위한 상륙작전이 그 대미를 이룰 것이었다.

대청 압박 작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틀을 갖추어 가면서, 병렬적으로 청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 수집 작업이 전개되었다. 각국 주재 러

2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90.

2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140-141. 이에 청국 압박 작전에 전함뿐만 아니라 수송선도 동원되었다. 블라디보스톡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병력수송과 군수품 조달을 위해 러시아 의용함대(Российский 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소속의 증기선 ‘모스크바’호와 ‘페테르부르크’호가 극동으로 출발했다. 또한 크론슈타트를 출발했던 수송선 ‘러시아’호도 오데사(Odessa)에서 독일과 덴마크의 수송선들로부터 군수품을 옮겨 신고 극동으로 향했다. 그럼에도 대포를 장전하고 화물을 꾸리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880년 8월-9월이 되어서야 대포, 수뢰(水雷), 화기 및 군수품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당도했다.(РГАВМФ. Ф.283. Оп.3. Д.1396. Л.79; Ф.410. Оп.2. Д.3674. Л.1, 6, 19, 33, 77, 333, 372.)

시아 외교관과 무관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망을 바탕으로 청국 주재 독일외교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천진, 상하이, 아모이, 광둥의 해안 방위 상황에 대한 駐淸 독일영사들의 보고서 사본들이 러시아 해군성으로 전달되었다. 주청공사 코안테르가 청국 해군의 전투함 리스트를 페테르부르크로 발송할 수 있었던 것도 주청독일공사 브란트(Max von Brandt)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레습스키 제독은 해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필사, 인쇄하여 태평양에서 현재 순항중이거나 태평양으로 출발예정 함정의 함장들에게 보낼 것을 지시할 수 있었다.²²⁾

러시아 함대의 극동원정을 위한 독일외교관들의 정보 협력은 1880년 1월 4일 주독일대사로 임명된 사브로프(П.А.Сабров)의 對獨 접근이 배경이 되었다. 베를린 회의 이후 3제동맹(三帝同盟)이 와해되고 유럽의 외교무대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청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재차 독일과의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1880년 1월 31에서 2월 7일 사이에 개최된 사브로프와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간의 회담은 양국 간의 동맹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찾는데 목적이 있었다. 협상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키고 러독 양국간의 이국동맹(二國同盟)에 관심을 보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킨 三帝同盟을 성립시키고자 한 독일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었으나, 마침내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가 참여하는 제2차 삼제동맹(1881. 6.18.)을 결성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유럽의 외교무대에서 고립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²³⁾

청국에 대한 압박 작전을 위해 러시아 군부가 마지막으로 점검한 부분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방위 문제였다. ‘연해주 방위를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가 개최(4월 15일)된 것은 청국 함대의 블라디보스톡 공

2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11.

23) William Langer, *European Alliances and Alignments 1871-1890*,(New York: 1956). pp.197-211.

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해안포를 강화하고 수뢰를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방비책은 이 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톡 포대의 대포를 강선이 있는 신형 대포로 교체하는 동시에 추가로 새로운 포대를 신축하고 나아가 금각만(Золотой Рог)과 동방 보스포러스(Пролив Босфор Восточный) 해협에 각각 수뢰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다.²⁴⁾ 이에 해군성이 전기 작동 수뢰 400개의 배송을 육군성에 요청한 것도 해안 포대와는 별개로 수뢰를 부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²⁵⁾ 이 계획은 5월 15일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재가를 받았다.

대청 압박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친 러시아 정부는 양대 함대, 즉 아슬란베고프 함대와 슈타켈베르크 함대를 결합한 태평양의 러시아 해군을 총괄할 사령관을 임명해야 했다. 당초 대제독(Генерал-Адмирал)이 추천했었던 쉐스타코프(И.А.Шестаков) 해군소장은 이를 고사했다. 이유는 청국에 대한 압박 작전의 무모성이었다. 다양한 함선들을 모아 놓은 함대가 “4억의 인구를 가진 국가와 전쟁을 하기 위해 15,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벌이고 전쟁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반대의견의 요지였다.²⁶⁾ 이에 두 번째 추천자였던 치하체프(Н.М.Чихачев) 제독마저 거부함으로써 결국 해군상 레슈스키 제독이 극동 원정함대의 사령관을 맡게 되었다(6.30.). 그리고 1880년 7월 5일 부해군상 페슈로프(А.А.Пещуров)가 해군상을 승계했다.

1880년 7월 18일 해군성의 대제독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 대공(вел. кн. 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은 레슈스키 제독을 극동으로 출정시

24)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208-213.

25)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172-173. 1880년 5월 6일 총제독 콘스탄틴 니콜라예비치(вел.кн. 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대공이 청국이 영국에 주문한 대형 함포가 탑재된 장갑 전함 2척의 건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가능하다면, 이 전함을 러시아가 재구입할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을 지시한 것도 청국해군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이었다(РГАВМФ. Ф.410. Оп. 2. Д.4071. Л.176).

26) РГАВМФ. Ф.26. Оп.1. Д.20. Л.562.

키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청국과 전쟁의 결과는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점령과 같이 북경의 함락 이외에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²⁷⁾ 이에 육군상 밀류틴이 페슈로프 제독에게 육군성은 25,000명 규모의 상륙부대를 동원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으며, 해군성에서 이들의 수송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문의(8.11.)한 것도 상술한 계획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해군성에서는 북경함락이라는 최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했다. 하나는, 현지 상황을 살펴 본 레쉴스키 제독의 정세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국의 협상대표 증기택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시작한 교섭의 성격이었다.

3.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의 체결

레쉴스키는 1880년 7월 14일 임지로 출발했다. 오데사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뒤 극동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다. 러일전쟁(1904-5) 당시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를 이끌고 극동에 내도한 로제스트벤스키(З.П.Рожественский) 제독보다 무려 24년 앞서 극동원정을 감행했던 레쉴스키 제독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레쉴스키는 임지로 부임하는 여정에서 극동에서 대기 중이던 슈타켈베르크 제독과 아슬란베고프 제독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전자에게는 이미 일본에 도착한 전함[미닌(Миинин), 포자르스키 공(Князь Пожарский)], 쥐기트(Джигит), 나예즈니크(Наездник), 라즈보이니크(Разбойник), 아브료크(Абрек), 아시아(Азия)]들로 구성된 북방

27)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332-333.

함대를 지휘하여 블라디보스톡을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반면 아슬란 베고프 제독에게는 극동으로 방금 출발한 함정들[아프리카(Африка), 예브로파(Европа), 자비아카(Забияка), 플라스툰(Пластун), 스트렐 로크(Стрелок)] 로 구성된 제2함대의 지휘를 맡길 예정이었다. 이 함대의 집결 예정지는 싱가포르였다. 이곳에서 해군성이 주문한 군수 장비를 실은 수송선들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들을 블라디보스톡까지 호위하여 이동시키는 임무가 부여되었다.²⁸⁾ 결국 러시아의 해군력을 극동으로 집결시키는 작업은 1880년 가을까지 이어졌다.

레슈스키 제독이 북경주재 공사 코안테르에게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9.8.)한 것은 상하이 도착 직후였다. 대청 압박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이리(伊犁)문제에 대한 청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었다. 코안테르의 편지는 청정부가 대러 협상으로 방향 전환한 주요원인이 러시아함대의 극동원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²⁹⁾

駐淸公使는 비록 청국정부가 외국에서 무기구입을 지속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었음에도 정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홍장을 수장으로 한 主和派가 전쟁에 반대하며 점차 청정부 내에서 득세한 것을

28) РГАВМФ. Ф.536. Оп.1. Д.1. Л.80.

29) 1880년 7월 18일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金弘集은 주일청국공사 何如璋과 黃遵憲을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홍집과 하여장이 나눈 필담(1880.9.7.)에는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김홍집이 말하기를, “방금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만났더니 말하기를, 러시아 兵船이 장차 우리나라 東南海를 경유하여 山東省 해안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던데 크게 염려가 됩니다.” 하여장(何如璋)이 말하기를, “전에 신문에 난 일이 있는데 러시아 병선이 山東의 烟臺를 경유한다는 이 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문강 하구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계속 나가사키에 왔다가 석탄을 琿春 海口에 운반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과伊犁건을 서로 협의하고 있어 이 일이 어느 정도쯤 마쳐지고 있는데, 만약 이 일이 나중에 마치게 되면, 그들의 兵船이 귀국의 북쪽에 있다가 혹시 통상을 하자는 말을 하면서 事端이 생기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金弘集 著, 金益洙 譯, 『修信使日記, 大清欽使筆談』, (제주문화원: 1996), pp.205-224.]

그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코안데르는 청정부에 조언을 해오던 유럽 외교관들도 적극적으로 양보를 권유하고 있음을 보고했다.³⁰⁾ 6월 26일 사형을 선고받은 승후를 임시 사면한다는 황제의 칙령과 주영 청국공사 증기택(曾紀澤)이 이리조약 재협상을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도착(7.23.)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페테르부르크 정부 역시 극동으로 해군력 집결이 완료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 러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무력시위 명령을 자제하고 있었다. 러시아 해군성도 슈타켈베르크 제독에게 두 개의 함대로 구성된 러시아 함대가 하나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1880. 6.30.)시켰다. “증강되고 있는 러시아의 함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추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³¹⁾

외교적으로도 1880년 7월부터 1881년 초까지 러시아정부는 발칸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극동정책 기초를 조정하고 있었다. 정책조정 핵심은 청국과의 관계 악화를 자제하고 1880년 4월 집권한 영국의 자유당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있었다.³²⁾ 따라서 러시아 외무성은 리바디아 조약을 고수하자고 주장한 육군성과는 달리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청국과의 타협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러청 양국 간의 긴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따라 레습스키는

3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7.

3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236.

32) 영국의 대외정책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진자운동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진파(Forward School)는 해외의 변경을 확장함으로써 제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확장론자들이며 보수당과 입장을 같이한다, 반면 공고파(Consolidation School)는 국제협약이나 비공식적 영향력을 통해 제국의 이익을 수호하되 대영 제국의 팽창을 반대한 자유당의 노선을 지지했다. 1880년 4월 글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을 수장으로 한 자유당 정부는 해외문제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개입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러청 간의 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에게 유리한 전쟁결과가 도출될 경우, 북경을 점령한 러시아에 의해 중국내 영국의 지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Immanuel Hsu.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p.14.

해군성 특별회의 결의사항을 당분간 이행하고자 했다. 그 결의사항이란 “청국과 개전하기 이전까지는 항상 청국과 일본주재 공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며, 공사들이 본부로부터 수신한 정보 혹은 현지 공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³⁾ 이에 레슈스키는 먼저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확장사업과 연해주 방위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오직 전시에만 그가 독자적으로 청국함대를 격퇴하거나 청국의 주요항구를 점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청국 해안을 봉쇄한다는 계획은 중립 국가들의 상업적 이해를 고려해야 하고 외국 함대 사령관들과의 사전 협의 후이나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 또한 특별한 단서조항이었다. 레슈스키는 주일공사 스트루베가 한국과의 독자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6.15)했음에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레슈스키에게 내려진 해군성 훈령에는 “한국을 개항시키려는 서구열강의 시도에 착목하여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는 반드시 일본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⁴⁾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레슈스키는 외무성과 지속적인 연락과 협의를 통해서 행동하고자 했다.

한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청국의 전권대표 주영공사 증기택(曾紀澤)은 외상 기르스를 방문하고 8월 10일 차르스코에 셀로(Царское село)에서 황제 알렉산드르 II세(Александр II)를 알현했다. 그 전에 8월 5일 주청공사 코얀데르는 송후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음을 전문으로 알린바 있었다. 대러교섭을 앞둔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였다. 그럼에

33)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 274-279. Указания,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руководиться Главный Начальник наших морских сил в Тихом Океане, 5 июля 1880 г.

34) Там же. Л.274-279.

도 같은 날 차르는 주러 일본공사 야나기바라 사키미쓰(柳原前光)의 신임장도 제정 받았다. 러시아 역시 1879년 일본의 류큐(琉球) 귀속문제로 청일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는 증기택으로 하여금 일본이 러청 간의 전쟁 시 러시아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증기택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간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해군상 페슈로프 제독이 홍콩에 머물고 있던 레슈스키 제독에게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전문을 발송(8.14.)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 역시 협상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8월 13일 육군상 밀류틴의 주재하에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는 테케스 강 유역의 토지를 이전해줄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 대신 청국으로부터 군대 주둔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³⁵⁾

이에 1880년 9월에 접어들어 러청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났다. 코안데르 공사는 레슈스키 제독에게 보내는 편지(9.19)에서 “청국의 대신들이 두 달 전부터 러시아와의 직접 교섭에 착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해왔음을 보고했다. 대러교섭을 위해 중국측은 지난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러시아의 개별 요구사항들을 일주일 만에 모두 해결해주었음을 강조했다.³⁶⁾ 또한 레슈스키 제독은 외무상 기르스의 임무를 임시로 대행하고 있던 외무성 자문관 조미니(А.Г.Жомини)로부터 보다 진전된 내용의 전문을 접수했는데, 그 요지는 차르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쿨제(伊犁)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굳혔으며 이는 청국측의 제의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주청공사 코안데르가 레슈스키 제독에게 청국을 위협하는 해군 압박 작전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주청공사의

35)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359.

36) РГАВМФ. Ф.536. Оп.1. Д.49. Л.706-8 об.

보고(10.1.)에 따르면, 이홍장은 러청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외세파(主戰派)에게 명분을 주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만일 현 상황에서 러시아 함대가 청국을 위협하는 해상시위를 한다면, 이는 청국에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타협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³⁷⁾

그럼에도 일본에서 획득한 정보는 청국의 유화정책이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책략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8월 말 상하이에 도착한 후, 나가사키를 거쳐 9월 4일 순양함 ‘아프리카’호를 타고 츠푸(芝罘)에 도착한 레솅스키는 이곳에서 열강의 제독들과 조우했다. 이후 그는 다시 나가사키로 되돌아와 주일러시아공사 스트루베(К.В.Струве)로부터 청국 문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일본 외무상 이노우에가 주청일본공사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청국의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정파가 승리할지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전해왔다”는 스트루베의 보고서는 러청 간의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예고하고 있었다.³⁸⁾

따라서 주일공사의 보고서에 대한 레솅스키의 회신(9.23)에서는 대청 압박전략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 러시아 군함들이 일본의 항구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지, 2) 이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3) 1878년의 전례에 따라 일본에서 영업 중이던 미국의 무역회사 ‘월쉬 홀 컴퍼니(Walsh & Hall Company)’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급품과 석탄을 납품받을 수 있는지가 그 핵심이었다.³⁹⁾

결국 레솅스키는 청국 침공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정부 내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혼돈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880년 10월 8일

37) Там же. Л.6-12.

38) РГАВМФ. Ф.536. Оп.1. Д.50. Л.48 об.

39) РГАВМФ. Ф.536. Оп.1. Д.50. Л.29—29 об.

블라디보스톡에서 레솅스키 제독, 연해주 군사령관 티흐메네프(М.И. Тихменева) 육군 소장, 그리고 육군성과 해군성의 파견관이 참석한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만주의 심양(瀋陽) 방향으로 청국 내륙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 계획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⁴⁰⁾ 이 계획에서 레솅스키 함대의 임무는 청국함대가 外海로 나오지 못하도록 청국 항구들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연해주에 대한 청국해군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다.⁴¹⁾

아울러 레솅스키 함대는 러시아 육군이 심양으로 진격하는 동안 이를 해상에서 지원하는 작전계획도 수립했다. 블라고베웬스크, 하바롭스크, 니콜스크 지역에 집결한 티흐메네프 장군이 지휘하는 러시아 육군의 만주침략 작전에 대한 측면 지원이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발해만을 봉쇄하고 주요 항구들을 공격하여 그곳에 설치된 포대를 파괴하고 적어도 4,000명 이상의 해병대를 요동반도 동서 해안으로 상륙시킨다는 세부계획이 마련되었다.⁴²⁾

레솅스키의 계획은 러시아 해군성에서 신속하게 검토되었다. 해상대리 페슈로프 제독은 관방국에 작전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및 이 계획에 대한 육군성의 견해를 타진했다. 레솅스키의 계획을 검토한 결과, 2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만주로의 진격을 위해 8천명의 해병대를 동원할 경우, 장비와 병력수송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야기된다는 점과 둘째, 상술했던 지난 8월에 수립된 북경을 공격하기 위해 100문의 야포와 25,000명의 병력을 투입한다는 작전계획을 배제하고 이 계획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극동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척의 증기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3,500만 루블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하기란 당시 재정 형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4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191 об.

4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192об.

4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186-189 об.

결론이 도출되었다.⁴³⁾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북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협상의 장기화 전략이 선호되었다. 10월 25일 조미니 외상 대리가 블라디보스톡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협상을 지연시키라는 훈령을 받았으며, 그때 가서 전쟁을 할지 강화를 할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만일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군사행동은 오직 5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요지였다.⁴⁴⁾

결국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러청 간의 군사적 대립은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협상에 임하는 러시아측의 입장 변화가 그 계기였다. 리바디아 조약이 체결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조약개정을 요구한 청국의 협상안에 대해 러시아는 진지하게 검토한바 없었다. 그럼에도 11월 23일 주일공사 스트루베를 통해 레솅스키에게 전달된 조미니 외상대리의 전문에는 “청국의 증기택과의 교섭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측에서 청국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리지역에 러시아군대 주둔과 관련된 군비 지출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도 양보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아가 “청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협정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⁴⁵⁾

그럼에도 레솅스키는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비록 그는 1880년의 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일본 항구에서 러시아 함대 전함들이 월동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쿄 방문을 허가받았음에도(11.9.) 이를 즉각 실행하지 않았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요코하마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러시아 함대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철수하기로 한 계획은 러청간의

43) РГАВМФ. Ф.410. Оп.2. Д.3680. Л.3-3 об.

44) РГАВМФ. Ф.536. Оп.1. Д.50. Л.81.

45) РГАВМФ. Ф.536. Оп.1. Д.50. Л.93.

교섭이 재개되었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야 가능했다.⁴⁶⁾ 그러나 11월 13일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한 ‘예브로파’호는 11월 14일 아침 몰아닥친 태풍으로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레솅스키 제독은 다리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오랜 동안 전열에서 열외가 되고 말았다.

이후 레솅스키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태평양함대의 지휘권을 제1함단 사령관 슈타켈베르그 중장에게 넘겼다.⁴⁷⁾ 슈타켈베르그 제독이 스트루베 주일공사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문제는 러청간의 전쟁시 일본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중립을 취하도록 교섭하는 문제였다.⁴⁸⁾ 러청 간의 대립은 류큐(琉球)의 병합문제로 청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 함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함대가 요코하마(横浜)정박지에서 사열식(1.21.)을 거행할 때 열렬한 환영을 보냈고 슈타켈베르그 제독이 참모진과 전함사령관들을 대동하여 천황을 알현(1881.1.29.)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⁴⁹⁾

마침내 러청 간의 이리(伊犁)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타협은 1880년 12월에 결정되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공식 서명된 것은 1881년 2월 12일이었다. 1880년 11월 30일 육군상 밀류틴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외무상과 신임 재무상 아바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청국에게 테케스 강 협곡을 돌려주고, 통상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협상은 속도를 냈다. 증기택은 완고함으로 일관하면서 송화강(松花江) 항행권과 같은 러시아측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포기하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리바디아 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다. 1880년 12월 14일 조약의 추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8일 청정부는 증기택으로 하여

46)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80, 83-86.

47) РГАВМФ. Ф.536. Оп.1. Д.46. Л.141, 173; Д.54. Л.217-217об.

48)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296.

49) Кондратенко,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pp.57-58.

금 조약에 서명하도록 훈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⁵⁰⁾

이 기간 동안 레쉴스키 제독의 태평양함대는 청정부의 비준을 기다리며 일본의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으며, 조약은 1881년 5월 3일 비준되었다. 이후 부산에서 회복한 레쉴스키 제독은 일본을 방문하여 커다란 환대를 받았다. 1881년 6월 3일 이루어진 천황 알현은 다음날 도쿄의 수도방위사령부의 퍼레이드와 환송연으로 이어졌고, 그 후 1881년 6월 7일 제독은 ‘예브로파’호를 타고 홍콩으로 출항할 수 있었다.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에 두드러진 족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극동원정 추진과정에서 봉착한 수많은 문제들을 러일전쟁(1904-1905) 시기까지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중심부와 극동의 도시들과의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했고 해상 교통로 역시 너무 멀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도크, 대형 기중기 그리고 선박 수리창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해군기지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은 충족되지 못했다.⁵¹⁾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의 방위는 함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독자적인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흑룡강에도 함포를 갖춘 전함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었다.⁵²⁾

결과적으로 1880-1881년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러시아 당료자들 사이에 청일전쟁 직전까지 청국과의 전쟁은 가장 고통스러운 정치·군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청국과의 전쟁은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⁵³⁾ 그럼에도 러시아정부는 청국과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회피하면서 19세기 말까지 레쉴스키 제독이 수립한 극동에서의 해군전쟁 계획을 따르게 되었다. 나아가 레쉴스키 제독의 극동원정은 고종의 북방정책을 태동시켰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5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157, 174.

5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224

5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56.

53)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2. Л.203 об.

4. 고종정부의 북방외교와 한러수교

『조선책략』은 김홍집(金弘集)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1880년 7월 18일 주일청국공사관의 공서참찬(公署參贊) 황준헌을 만나, 그가 쓴 『私擬朝鮮策略』 1책을 증정하므로 가지고 돌아와 고종이 열람하도록 올림으로써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일청국공사 何如章과 참찬관 황준헌은 일본의 개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정사 김홍집에게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권고한 바 있었다. 권고의 요체는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하여 自強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침략은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인바,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청국, 일본, 미국과 舍從하여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황준헌의 권고는 “표트르왕(彼得王) 이래 새로 강토를 개척한 것이 10배가 넘고 중앙아시아 위구르(回鶻)를 잠식해오는”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청국의 우려일 뿐 조선과는 무관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중화질서의 중심으로서 청국이 흔들리는 것은 청에 대한 조선의 전통적인 신뢰를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선이 자주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청의 동요가 조선에게 기회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고종은 청에 기대어 독립을 유지하기도 힘들거니와 제3국이 조선을 침략할 경우, 청의 원조를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고종의 이같은 입장은 1880년 10월 2일 수신사 김홍집의 복명을 듣는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상(上)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를 꼬이고 놀라게 하려는 단서가 아닌가?”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선을 위하여 대신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희 나라(청국-필자)를 위하여 그러한 것이다(弘集曰, 彼言以爲此非爲貴國代謀, 實爲渠國而

然矣.)’라고 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미 스스로 저희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면 그 말이 혹 그럴 듯하다.”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저들의 말을 비록 깊이 믿을 수는 없으나, 청나라 사신에게 물어 보니, 또한 그 실정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⁵⁴⁾

이는 청국에서 송후를 처벌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고종의 의문과 연관되어 있었다. 청정부가 땅을 떼어줄 것을 허락한 송후를 처형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혔음에도 그를 석방한 반면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청국의 입장에 고종은 수긍할 수 없었다. 비록 김홍집이 “송후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중국이 이미 그에게 전권(專權)을 위임하고서도 그가 허락한 것을 뒤따라 어긴다면, 이것은 이웃 나라에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아뢰었지만, 청국이 대러 타협을 도모하면서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태도는 고종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고종은 청이 제시한 조선의 외교 책략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책략에서 “러시아의 정복은 처음엔 유럽에서 시작했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어졌고 금일에 이르러선 다시 동아시아로 옮겨졌는데 조선이 마침 그 폐해를 입게 되었다”는 防俄論의 배경에 대해 회의를 표명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는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 내도에 대해 청국과 한국의 견해가 갈리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결국 고종은 조선책략적 외교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것은 조선을 위하여 대신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국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다.”⁵⁵⁾

그렇다면 고종이 조선책략의 저의를 이같이 파악하게 된 근거는 무엇

54)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8月 28日.

55) 『高宗實錄』 高宗 17年 9月 8日. 고종은 일본인들이 부추기는 공리의식의 저의 또한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일본 사람의 말을 보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러시아로서 조선이 대비하기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를 위한 것이다.”(教曰: “見日本人之言, 則似是渠之所畏在俄, 而要朝鮮備之。 其實非爲朝鮮而爲渠國也。”)

인가? 이는 종래의 事大交隣 외교에서 전혀 고려된 바 없었으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러시아에 대한 국왕의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고종은 러시아 변수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여 그의 북방정책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향후 조선의 독립과 자주외교의 주축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한편으로 이리사태를 둘러싼 러청 간의 갈등 해결과정에 대한 나름의 분석 결과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를 쇠퇴해가는 청국의 대체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요컨대 고종은 포스트 중화체제에 대한 전망을 러시아에서 찾은 것이었다.

고종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예의주시한 것도 러시아가 청국을 대체할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1880년 9월 8일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방금 러시아 사람이 병선(兵船) 16척을 모았는데, 선마다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워진 뒤엔 그 세력이 틀림없이 장차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진실로 추측할 수 없으니, 어찌 위태하지 않겠으며, 급박하지 않겠는지.”를 아뢰자 고종은 “러시아 사람이 장차 산둥(山東)으로 간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지”를 확인하였다.⁵⁶⁾ 국왕의 생각으로는 러청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가 두만강에서 조선의 동남해안을 돌아 산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환언하면 러청 간의 갈등이 조선반도로 불뚱이 튕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었다.⁵⁷⁾ “그들의 동정을 살피건대, 우리나라에 대하여 과연 악의가 없는지”를 김홍집에게 고종이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 본 바로는 우선 가까운 시일 안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이 일에 대해서 청나라 사신에게 물어보니, 또한 실정은 그러하다”는 김홍집의 진언이 있었다.⁵⁸⁾

56)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月 8日.

57)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月 8日. 이는 이최응도 같은 생각이었다. “임진년의 일로 보건대, 길을 빌린다고 핑계대고 공연히 나온 것이지 실로 길을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길을 빌릴 뜻이 없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58)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8月 28日.

결국 1880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레쉴스키 함대의 출현은 고종으로 하여금 청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반면, 한러간의 적대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최응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기실 겉으로는 위하는 체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는 조선이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저들 나라가 틀림없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언하고 있었다. 김홍집 역시 청국공사가 러시아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며 조선을 돕는데 성의가 대단하다고 아뢰자, “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고자 해도, 이것이 어찌 깊이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요컨대, 우리도 또한 부강해질 방도를 시행해야 할 뿐”⁵⁹⁾이라는 고종의 입장은 청국에 대한 신뢰하락과 자주외교의 의지를 오롯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고종의 이 같은 입장은 러청 간의 이리협상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김홍집은 러시아 함대의 극동 내도가 러청 간의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주일 청국 외교관들과 접촉하여 “중국일은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왜냐하면 청국정부가 “송후(崇厚)를 이미 석방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리(伊犁) 지방을 끝내 아라사에게 허락하고서야 러청 협상이 끝날 듯하다”는 현지 관측통들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종은 청국에게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송후를 처형해야 한다는 청정부 내부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가 석방된 것에 의아해했다. 고종이 “송후를 어째서 죄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를 설명한 김홍집의 진언에 따르면, “송후가 제멋대로 땅을 떼어 줄 것을 허락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그에게 전권(專權)을 위임하고서도 그가 허락한 것을 뒤따라 어긴다면, 이것은 이웃 나라에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줄

59)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8月 28日.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국이 승후를 석방한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신뢰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청정부 내에서 주전파가 득세한 상황에서 이리지역의 반환은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승후는 속죄양에 불과했다.⁶⁰⁾ 따라서 승후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각오하고 조약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반면, 그를 석방했다는 것은 이의 포기를 의미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자살행위”로 간주한 협상파가 득세함으로써 러청 간의 우호관계 수립에 대외정책의 방점을 찍은 것이기 때문이었다.⁶¹⁾

이리문제를 둘러싼 러청 간의 대립에서 청국이 보인 타협적인 태도와 약세는 고종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견청사절단(遣淸使節團)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⁶²⁾ 1881년 4월 8일 고종이 사절단 正使 임응준(任應準)에게 1) 청이 러시아와 강화하는데 배상에 든 비용이 얼마였는지 2)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했던 러시아 수병들은 역시 돌아갔는지 3) 청국의 국정을 주모하는 자는 누구이며, 주화(主和)와 주전(主戰)에 대해 각각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4) 좌종당에 대해 청조정(淸朝廷)이 신임(信任)하여 이미 척화(斥和)의 논의가 발동하였음에도 왜 뜻을 굽혀 화의(和議)를 따르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고종은 전통의 중화 질서 속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였던 청국의 흔들리는 위상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60) Воскресенский А.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 китайского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говора 1881 года. М. (1995). p.111.

61) 위의 책, pp.115-116.

62)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4月 8日. 3인의 見淸使節團은 정사(正使) 임응준(任應準), 부사(副使) 정직조(鄭稷朝), 서장관 홍종영(洪鍾永)이었다.

고종의 질의에 대한 임응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배상금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고 2-4백만 정도이며 2) 러시아가 군사를 발동시킨다고 공갈과 협박을 하여 청국이 이에 대한 비어(備禦)의 방책을 해야만 했으나, 군수물자 공급상의 애로로 인해 화의(和議)론이 제기되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오랜 시간을 끈 후에야 조약이 이루어져 현재는 눈앞의 근심은 면한 상태이며 3) 좌종당(左宗棠)이 주전(主戰)을 이홍장(李鴻章)은 주화(主和)를 주장하며 4) 감숙 총독(甘肅總督) 좌종당은 청조정(淸朝廷)의 신임을 받았지만 끝내 화의(和議)가 이루어진 것은 이홍장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고종은 청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러시아와 타협하게 된 근본 원인이 군사전략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북방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남쪽지방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지방에 머물게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었다.⁶³⁾ 청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精兵을 북부지방에 유지 못한다면, 청국의 대러 약세는 지속될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 경우, 청국은 결코 그 우환으로부터 조선을 구해줄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비록 러청 간의 이리 위기는 양국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화질서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레솅스키 함대의 원정은 1) 청국에게 서구열강의 함포외교의 위협을 재현시켰고 2) 러시아의 대규모 함대와 수병들이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함으로써 군수문제와 식료품 보급을 위해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3) 고종에게 쇠락하는 청제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 원정은 고종이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서 벗어나 포스트 중화체제

63)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4月 8日.

(Post Sinocentric system)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 중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문호개방을 천명한 고종의 외교는 이제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한 북방외교로 표출되었다. 이는 중화질서의 구조에 한중관계를 복속시켜 왔던 전통의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청국이 고취했던 공포의식(Russophobia)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와의 수교를 목표로 한 고종정부의 대리접근이 이루어졌다.

1882년 7월 5일 주일러시아공사 로젠(P.P.Розен)이 외상 기르스(Н.К.Гирс)에게 보낸 보고서는 고종정부의 북방외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⁶⁴⁾ 보고서에 따르면, 두 명의 한국인이 주일러시아 공사관 방문을 계기로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은 러시아 지방당국이 연해주 한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칭송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왕(고종)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러시아정부의 후견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떠나는 길에 둘 가운데 연배가 높은 김옥균이라는 자가 러시아도 미국(5.22.)과 영국(6.6.)의 전례에 따라 인접국인 한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했다”고 로젠은 보고했다.

고종정부의 대리접근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박영효를 단장으로 한 수신사 일행은 조속한 한러수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균을 포함한 수신사들은 도쿄에서 개최한 외교관 초청 만찬에서 주일공사 로젠에게 한국에 대한 청국의 속방화(屬邦化)정책을 저지하고 자주와 독립을 유지할 유일한 방책은 “청국의 개입을 배제한 러시아와의 조속한 수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러시아 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882년 11월 13일 로젠은 외상 기르스에게 “차르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으며, 나아가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청국으로부터 한국의 독립보

64) Донесение Посланика в Токио Барона Розен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К.Гирсу, 23 июня 1882 г.:Первые известие о Корее в России(1675-1884), сос. Ю.В.Ваннин, Б.Д.Пак.Б.Б.Пак, (М.:Первое марта), 2009. С.270.

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⁶⁵⁾

그럼에도 러시아 외무성은 한러수교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약소국 한국은 열강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국과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영토보전을 보장해 준다. 둘째, 이미 한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했던 영국과 독일이 이를 비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조약이 비준될 경우, 러시아는 이를 기준으로 영국 및 독일과 동등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⁶⁶⁾

이에 영국정부가 한영수호통상조약을 비준(1884.4.4.)한 이후, 연해주 노보키엡스코예(Новокиевское)의 국경 관무관 마튜닌(Н.Г.Матюнин)을 방문(5.5.)한 한국의 관리는 고종의 특사 김광훈(金光勳)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과 조약체결을 원하는지 문의했다. 왜냐하면, 국왕은 “한러 간의 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러시아의 교류를 원치 않는 청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⁶⁷⁾

1884년 6월 20일 천진(天津)주재 러시아영사 베베르(К.И.Вебер)가 즈푸(芝罘)에서 인천에 도착한 목적은 한러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를 맞이하러 인천에 도착한 인물은 도쿄에서 로젠공사에게 한러수교를 제의했었던 김옥균(金玉均)이었다. 그의 안내로 서울에 도착한 베베르는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884년 7월 7일 한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⁶⁸⁾ 그러나 베베르와 김옥균의 만남

65) Донесение Посланика в Токио Барона Розена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К.Гирсу, 13 ноября 1882 г.: Первые известие о Корее в России (1675-1884), С.284-286.

66) Из Проекта Инструкции посланику в Пекине д.с.с. Попову, 6 июля 1883 г.: Первые известие о Корее в России(1675-1884), С.332-333.

67) Б.Д.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2004. pp.10-131.

68)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윤5월 15일; Treaties, Regulations, etc., between Korea and other Powers. 1876-1889. Shanghai; London,; P.S. King & Son, 1891. pp.263-307.

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는 갑신정변을 주도한 죄로 일본으로 망명하여 상하이에서 암살(1894.3.28.)되었기 때문이었다.

5. 결 론

상술한바와 같이 러청 간의 이리분쟁이 한반도에 파급되는 상황을 고종의 북방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리분쟁을 통해 근대 한국의 외교지평에 떠오른 러시아는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지닌 고종에게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이에 러시아 해군력의 위용을 과시한 레쇼프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고종이 『朝鮮策略』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하여 한러수교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각 장별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러청이리분쟁(露清伊犁紛爭)과 레쇼프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에서는 신장(新疆) 지역 서북부의 이리지역을 둘러싼 영토문제가 러시아와 청국 양국 간의 전쟁위기로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러터전쟁(1877-78)과 베를린회의를 거치면서 재정이 고갈되고 외교적으로 고립 상황에 빠지게 된 러시아에 대해 청국이 조약개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은 개전위기로 몰리게 되었다. 러청 간의 이리지역 반환에 관한 리바디아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양국관계가 파국에 이른 것은 청정부 내에 반외세를 기치로 한 주전파가 득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차르정부는 외교적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제2차 三帝同盟 체결을 모색하여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해군상 레쇼프스키가 지휘하는 태평양 원정함대를 결성하여 청국에 대한 군사 압박작전을 준비했다.

제3장 “레쇼프스키 함대의 대청무력시위(對淸武力示威)와 러청외교

협상”에서는 개전위기로 치달았던 러청 간의伊犁문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 체결(1881)이라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는 청정부가 내부적으로 주전파와 주화파로 분열되었고 외교적으로 청국을 후견했던 영국이 자유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러청 간의 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화파를 대표했던 이홍장은 레습스키 함대가 주전파를 자극할 해상무력 시위와 같은 압박전략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양국은 무력충돌 위기에서 벗어나 협상의 방식으로 이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제4장 “『朝鮮策略』과 고종의 북방외교”는 레습스키의 원정함대가 극동에 출현한 사건이 고종정부의 대러인식 변화와 한러수교(1884)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러시아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대규모 함대의 극동원정은 중화질서의 종주국인 청국의 위상을 흔들었고 전통적인 중화체제에 충격을 주었다. 그 대응책으로 청국은 러시아 공포를 조장한 『朝鮮策略』에 근거한 防俄策을 제시하여 한국의 외교를 중화질서의 틀 속에 가두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고종은 흔들리는 중국의 위상을 목도하면서 포스트 중화체제를 준비했다. 그 결과 고종은 한국을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로 부상시키기 위해 청국의 對韓屬邦化 정책과 일본의 한국 침략정책에 맞서 러시아에서 해법을 찾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북방정책은 그의 집권기간을 일관한 한국외교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8. 6. 30,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러터전쟁(1877-1878), 레습스키 함대, 일리분쟁, 조선책략, 고종의 대러접근책

<참 고 문 헌>

1. 자료

『高宗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http://db.itkc.or.kr>

1) 러시아해군함대문서관(РГАВМФ):

Ф.410. 해군성 관방국(КАНЦЕЛЯР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536. 태평양 전함편대[ОТРЯДЫ СУДОВ В ТИХОМ ОКЕАНЕ (1869–1888)]

2) 러시아역사문서관(РГИА)

Ф.1152. 국가회의 국가경제국(ДЕПАРТ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2. 논문 및 저서

金弘集 著, 金益洙 譯, 『修信使日記, 大清欽使筆談』, (제주문화원: 1996)

李光麟, 『舊韓末 露韓移住民의 韓國政界進出에 대하여 -金鶴羽의 活動을 中心으로』, 『歷史 學報』 108, 1985.

馮共峰, "论曾纪泽与中俄伊犁交涉",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社科版), 第26卷 第1期, 2010-2.

Hsu Immanuel,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Langer William, *European Alliances and Alignments 1871-1890*, (New York: 1956).

Shaw Stanford J., Shaw Ezel Kural, *History of the Ottoman Empire and Modern Turkey: The Rise of Modern Turkey 1808-19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стория Корея*, Том I, М., 1974.

Воскресенский А.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говора 1881 года*. М., 1995.

Нарочницкий А.Л.,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 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М., 1956.

Кондратенко Р.В.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2004.

Пак Бэлла ,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К.И.Вебер и Корея*, М., 2013.

Первые известие о Корее в России(1675–1884), сос. Ю.В.Ваннин, Б.Д.

Пак.Б.Б.Пак, (М.:Первое марта), 2009.

<Abstract>

Huang Zun-xian's "Korea strategy" against Russia's Advancement to Far east and King Gojong's Northern Diplomacy: Focused on Far Eastern Expedition of Admiral Lesovskii's Russian fleet(1880-1881)

Choi, Deok-kyoo

This article studied on the Korean king of Gojong's Northern diplomacy, caused by the Far Eastern Expedition of Russian Fleet,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Lesovskii, former minister of Russian Navy. Admiral Lesovskii's expedition to the Far East had started, when the Ili crisis got to the culmin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used by Ili problem. Although Ili crisis was an issue of Russo-Chinese border trade in Xinjiang Province of Ching empire, it was remained such a typical case as XinJiang version of Anglo-Russian confrontation. As a result, China, instead of Britain, played the role as a checker and resisted to the Russian south forwarding policy.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Russian Baltic fleet in the Russo-Japanese war, the Far Eastern Expedition of Lesovskii fleet had also a great influence on the outcome of confrontation as well as foreig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t seems that Lesovskii fleet, gathered in the Far East with 23 battle ship, was the prototype of Baltic Fleet. Lesovskii fleet, aimed at preparing the Russo-Chinese war, indirectly provided a chance for Gojong government to form a more concrete Northern policy included approaching to Russia. This study explores further possible explanations of the role of Lesovskii fleet to resolve the border

disput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how it interacted with Gojong's Northern policy that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Russia.

Key words : Russo-Turkish War(1877-1878), Admiral Lesovskii Fleet, Illi Crisis, Choseon Chaekryak(Choseon Strategy), Korean King Gojong's Policy toward Russia.